

2021년 5월 4주 |

키움 ESG Week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Weekly Issue:

미국이 움직인다, 기후 대응 First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난 정권에서 놓쳤던 ESG 투자 및 체제를 빠르게 정비해 나가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필두로 재무부, SEC, Fed 등 규제 당국 차원에서 잇따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 여기에 5/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관련 금융위험(Climate Related Financial Risk)'으로 명명된 행정명령을 발표. 기후변화가 미국 내 공공 및 민간 금융자산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담당 인사는 향후 120일 내 기후변화가 정부 프로그램, 자산, 부채에 미칠 위험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야 함

Chart: 美 백악관, '기후관련 금융위험' 행정명령 발표



BRIEFING ROOM

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MAY 20, 2021 • PRESIDENTIAL ACTIONS

자료: White House

주간 ESG 뉴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5/17~21)

▲ 기후 및 환경 관련

EXCLUSIVE Fed privately presses big banks on risks from climate change

- 5/13
- 美 연준, 금융기관과의 비공개 논의를 통해 대형 은행들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여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고려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력.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관행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금융기관이 연준에 제출할 자료는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여신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여신의 비교 분석 ▲홍수와 가뭄, 산불과 같은 물리적인 리스크에 대한 은행 자산의 노출 정도 등
 - 금융 리스크 전문가들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정책 등으로 인해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수 도 있다는 의견 제시. 일례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2020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와 연관된 1~4 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

<https://reut.rs/3oxM4lj>

Central Banks Jump Into Climate-Change Policy Fray

- 5/16
- 전세계 중앙은행들, 기후 변화가 재정 및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기후위기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 시중 은행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대출할 때 충족해야하는 자본금 기준을 올리거나, 기후위기를 위험 요소로 가정해 은행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식 등
 - 영란은행(BOE)의 경우, 통화정책위원회(MPC)의 임무에 불가안정 유지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균형잡힌 성장'을 포함.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기존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위험 요인도 추가
 - 그 외 ▲美 연준은 지난해 녹색금융협의체(NGFS)에 재가입했고 ▲프랑스 중앙은행은 기후 변화의 잠재적 비용을 집계하기 시작 ▲ECB는 기후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BIS(국제결제은행)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자금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https://on.wsj.com/3v550px>

'탄소중립 전략' 고도화, 연내 NDC 높인다

- 5/18
- 우리 정부, '제 222 차 대외경제협력회의 및 제 138 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 이슈 점검 및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
 - 이번 논의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연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여 제시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자원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
 - 이 가운데 지난달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기존 석탄발전 업계 사업전환 및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예정

<https://bit.ly/2QscPHD>

백악관, 연방건물 탄소배출 저감 위한 '건물 성능 기준' 개발 착수

- 5/18
- 백악관, 연방정부 건물과 주택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효율성 기준을 설정하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밝힘. 다만 건물 성능 기준 개발 일정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지는 않고, '연방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측정 기준, 목표, 추적 방법을 수립할 계획'이라고만 설명
 - 이번 조치는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를 이루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찬 기후 어젠다의 일환으로 풀이. 이 외에도 백악관은 신건축물연구소와 제휴하고, 열펌프 기술을 연구해 열펌프 운수기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1,000만달러(약 114억원)를 투자하겠다고도 설명
 - 현재 미국의 거주용 및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 연방정부 건물의 총 면적은 약 1억 8600만평방미터(약 522만 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EIA)

<https://bit.ly/3oBWbL>

The Increasing Costs of Being Complacent on Climate Change

- 5/19
- 글로벌 경제가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후 변화 리스크에 대처하기 시작. 참고로 태풍 샌디는 미국 내에서 홍수 피해를 일으켜 약 \$700억 규모의 피해를 입힌 바 있음 (NPR)
 - 맨하탄 끝자락에 위치한 해수면의 높이는 1950년 이래 8인치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2050년까지 뉴욕시의 수위는 2000년 대비 1 피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한 것으로 분석 (미국 해양대기청)
 - 만약 국제사회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시, 온난화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빙하 녹는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고 이후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 및 허리케인 등과 관련된 기타 환경 문제들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 설명
 -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이에 따라 美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 목표를 기반으로 유해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및 교통 부문의 전환을 제한하고 있음

<https://bit.ly/343U8gs>

5/19	<p>‘국제에너지기구’ 2050 가스배출 제로 달성…2025년부터 가스보일러 금지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에너지기구(IEA), 최근 공개한 특별보고서에서 세계가 2000년대 중반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2025년부터 새로운 화석 연료 보일러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에너지 부문은 지구 온도를 높이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75%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석탄이나 석유, 가스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 - 특별보고서에서 밝힌 2050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주요 단계를 살펴보면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감소시킴에 따라, 석유 및 천연 가스전, 탄광, 광산 개발이 불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 더불어 에너지 시스템 녹색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가 5조 달러로 늘어나면서 세계 GDP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 <p>https://bit.ly/3yt7CjV</p>
5/20	<p>Biden directs U.S. agencies to assess, mitigate risks of climate chan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美 대통령, 기후변화가 미국 내 공공 및 민간 금융자산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라는 행정명령 지시. 이번 조치는 탄소 배출 넷 제로(Net-Zero)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 - ‘기후관련 금융위험(Climature Related Financial Risk)’으로 명명된 이 행정명령에 따라 매가시 국립기후보좌관과 브라이언 경제자문위원은 향후 120일 내 기후변화가 정부 프로그램, 자산, 부채에 미칠 위험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야 함. 금융안정감시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엘런 재무장관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금융 위험 데이터를 보고할 예정 <p>https://bit.ly/2QI7X1m</p>
5/20	<p>ESG investors prioritising climate change over diversity – resear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고액자산가(HNWIs)가 20% 증가했으나, 오직 9%의 고액자산가만이 인종 다양성을 ESG 이슈 중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고 응답 (Smith & Williamson 자산운용) - 고액자산가의 절반 이상 (55%)이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고려해야하는 ESG 3대 이슈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리스크를 손꼽음. 한편 응답자의 30%가 지난해 흑인 인권 운동의 일환인 Black Lives Matte 로 인해 포트폴리오 구성 시 ESG를 더욱 고려하게 됐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로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3대 ESG 이슈 중 하나로 ‘인종 다양성’을 지목한 응답자는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Smith & Williamson 자산운용은,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과 같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및 정책적 지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ESG 이슈 및 투자 의제에서 친환경/환경 문제에 중점이 너무 치우쳐 있음을 지적.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영향과 지배구조까지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는 기업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이기도 하다고 설명 <p>https://bit.ly/3uelQRs</p>
5/21	<p>SPACs target more ESG companies in 2021 –Nomura Greente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SPACs 들의 합병 대상 상위 목록에 ESG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다수 존재. ‘21년 첫 4개월 동안 ESG 및 지속가능성 혹은 환경 기술, 운송, 산업재, 수자원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이 SPAC을 통해 IPO를 진행한 건은 총 49건으로 전체 306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짐 (2020년 하반기에는 총 40건이 진행됨, Nomura) - 2021년 현재까지 ESG 관련 기업의 SPAC 합병 건은 총 32건으로 이는 2020년 전체 31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 거래 규모는 총 \$1,170억으로 2020년 대비 2.5배 증가. 또한 이는 전체 SPAC 합병 거래량 중 38% 수준을 차지하는데 2020년 하반기 25.3%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 <p>https://reut.rs/3fCe67K</p>
5/21	<p>ESG 정보공개 기준 국제 표준화...IFRS가 주도권 잡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화된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IFRS 재단이 ESG 회계표준을 정하기 위해 설립할 SSB(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정보공개 기준 제정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 - SSB가 내년 발표할 초안에는 현재 일부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TCFD의 재무정보공개 권고안도 포함될 예정. SSB는 최소한의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고 SSB의 표준안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회원국들이 결정하게 됨 -미국의 회계전문지 어카운팅투데이는 이달 SSB가 출범하면 현재 ESG 공시 기준을 주도하고 있는 5개 기관이 SSB의 정보공개 표준 제정을 돕는 “실무그룹의 일원(part of working group)”이 될 것이라고 보도. 빅 5 기관은 SASB, IIRC, GRI, CDSB, CDP <p>https://bit.ly/34fSfNP</p>

▲ 기타/통합

5/16	<p>ESG 쏠 신설 기업 한달새 20곳 육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 달 새 ESG 위원회를 신설한 대기업 20개에 육박.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제조업부터 금융업까지 18개 기업이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올해 초부터 집계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남 - 기업들이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임직원과 소비자에게 ‘ESG에 신경쓰는 기업’이란 점을 강조할 수 있음.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대기업은 부품 및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ESG 실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ESG 이슈에 민감한 ‘그린슈머’가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 더불어 ESG 위원회에서 일할 사외이사 쟁탈전이 치열해 진 가운데 특히 ESG 관련 여성 사외이사 수요가 급증.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 위원을 선임하면 ESG 평가의 S(사회)와 G(지배구조) 부문 점수가 함께 올라감 <p>https://bit.ly/3oEF3f4</p>
------	--

5/16	<p>ESG Investors Turn to Emerging Markets, Defying Skeptic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펀드 매니저들, ESG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저렴한 자산을 찾기 위해 신흥국으로 사업 확장하는 모습. Nordea Bank Abp, 신흥국 ESG 자산에 투자하는 \$4,500억 규모 펀드 론칭. 관계자에 따르면, 신흥국 ESG 펀드 출시는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로, 이는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보다 나은 수익률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다만 신흥국 내 일부 기업들의 투명성 리스크를 고려, 그린워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발행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 - 일각에서는 신흥국 기업들이 ESG 매트릭스 공개에 대한 압박을 덜 받고, ESG 성과를 내세우는데 익숙치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책임감이 선진국보다 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더불어 피어그룹 내에서 ESG 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은 가격이 비싸 ESG 버블과 같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기에 ESG 개선 기회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 <p>https://bloom.bg/3bFMnBX</p>
5/17	<p>SEC Could Begin to Take ESG Stance on Company Disclosu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 기업들이 ESG 이슈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 컨슬러 SEC 위원장,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 혹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자재를 판매하는 국가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여부 등 ESG 관련 정보 공개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책임 부과할 예정 - 이 외에도 SEC는 기업의 ▲이사회 인종 다양성 ▲환경 관련 기준 충족 여부 및 관련 정보 전달 정확성 등을 모니터링할 것으로 예측. 증권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SEC는 현재 ESG 이슈에 대해 새로운 규정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가지 관련 사례들을 모색 중이며, 곧 해당 사례들을 증명할 것으로 전망 <p>https://bit.ly/346oxuB</p>
5/17	<p>ESG Options Could Raise 401(k) Participation Rat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Schroders 2021 US Retirement survey) 시행한 결과 가입자 중 40%가 그들의 고용인이 ESG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지 여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0% 중 69%는 ESG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ESG 투자 옵션 비중을 높일 의향이 있다고 응답 - 또한 ESG 옵션을 알고 있던 가입자 10명 중 9명이 ESG 옵션에 투자 중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Schroders의 미국 DC 그룹 담당 Deb Boyden은 이와 관련해, 연금 가입자에게 ESG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은퇴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 <p>https://bit.ly/3yBvcuT</p>
5/17	<p>금융연, '무늬만 ESG 확산...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당국 감시 강화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투자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ESG/그린 워싱' 리스크가 덩달아 커지는 양상.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중. 무늬만 ESG에 대한 경고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S&P 글로벌은 4/28일 보고서를 통해 ESG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ESG 워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ESG 채권 발행과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 - 또한 금융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ESG 표준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 마련 계획을 내놨으나 정책적으로 평가 지표나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 이어 녹색산업 분류 체계 등 ESG와 관련된 공적인 정의·분류 또한 신중하게 마련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들은 ESG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감독 당국도 감시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 <p>https://bit.ly/2RnT3O9</p>
5/18	<p>천연가스 친환경 분류, 유럽서 '뜨거운 감자'...BP 로비 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정유기업 BP, 천연가스 사용을 옹호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한도 규제 완화를 요구. 천연가스가 석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 탄소 포집 및 저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녹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것 - 앞서 EU는 '천연가스'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목록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일부 회원국 및 기업들의 이의 제기해 결정을 연기. - BP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 시장 의견은 엇갈림. 파리 협약에 맞추는 것은 산업별로 대응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천연가스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배출가스를 포집하고 메탄 발생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 <p>https://bit.ly/3hEJfd3</p>
5/19	<p>[시그널] 김용진 "ESG 평가기관만 500개...국민연금이 기준 제시하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ESG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필수로, 국민연금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 피력. 또한 국민연금이 ESG 투자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향후 기업과 투자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국민연금 ESG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 - 실질적인 ESG 투자를 위해 꼽는 첫번째 해법은 "일관된 ESG 평가 기준". 국민연금을 필두로 기관 투자자들이 ESG 보고서의 항목과 작성 기준을 통일하고 산업이나 지역, 기업별 여건이나 정책 환경을 수용하는 한국형 ESG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 또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의 뉴욕-런던-싱가포르에 위치한 해외 사무소에 각 1명씩 책임투자 담당자를 파견할 예정으로, 이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주식 및 채권에도 책임투자를 모니터링하고 기업과 대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 <p>https://bit.ly/3wiAae1</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기업 ESG 동향 Update (5/17~21)

▲ 기후 및 환경 관련

5/16	<p>Note to Elon: Crypto Miners Are Part of the Solution to Curbing Greenhouse Gas Emiss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화석 연료(특히 석탄) 사용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연료 중 최악의 탄소 배출량을 보인다고 주장.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사용한 동사의 차량 구매 결정 허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 한편 뉴욕주는 환경영향 연구가 수행되는 동안 뉴욕주 내 모든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해 3년 간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 센터는 뉴욕주의 탈탄소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정상 운영 상태로 복귀 가능 -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한 비트코인 전기소비지수(Bitcoin Electricity Consumption Index)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연간 약 147.8TWh 규모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는 스웨덴이 매년 사용하는 전력량과 유사한 수준. 한편 일각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숫자이지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위해 값싼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HIVE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트코인 채굴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 - 한편, Square와 ARK Invest 에서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이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가속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 <p>https://bit.ly/2QMAkLQ</p>
5/19	<p>Starbucks signs unique community solar deal involving 23 projects in New Yor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너레이트 캐피탈, 지난 13일 스타벅스와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 뉴욕 매장과 지역 사회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예고 - 앞서 스타벅스는 처칠 스테이트사이드 그룹의 펀딩을 통해, 23개 지역 사회를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에 97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스타벅스 매장과 최대 2만 4000가구, 소규모 기업들, 교회, 비영리 단체 및 대학들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 - 스타벅스 태양광 프로젝트는 매년 11만 9885MWhs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를 스타벅스 뉴욕 매장과 주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탄소 배출량을 50%로 절감한다는 목표 <p>https://bit.ly/34aRTYQ</p>
5/21	<p>아마존, 일본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공급하기 위해 풍력 발전소 건설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아마존이 일본 연안지역인 아키타현 인근에 해상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 기존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보다는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독점 구매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일본에 총 7개 데이터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은, "풍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일본 데이터센터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며, "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전력을 이 데이터 센터의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 목표"라고 밝힘 <p>https://bit.ly/3vdfDaF</p>

▲ 기타/통합

5/17	<p>KB 금융, ESG 상품 50兆 규모로 확대...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중장기 로드맵인 'KB 그린 웨이브'에 따라 2030년까지 현재 약 20조원 규모인 'ESG 상품·투자·대출'을 5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 그룹 전체 탄소배출량도 2017년 대비 25% 감축하기로 결정 - 지난 2월에는 환경파괴 위험이 있는 개발사업에 금융지원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인 '적도원칙' 가입. 이 외에도 ▲계열사 별로 친환경 에너지 및 중소·중견기업 투자 확대, ▲ESG 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 출시,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절감 등 다양한 노력 시행 중 <p>https://bit.ly/3oDPzZ</p>
5/17	<p>SK 이노베이션, 배터리·정유·화학에 'ESG 바람' 몰아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이노베이션, 사업구조를 친환경 사업으로 다변화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 생산을 줄이는 작업 진행. '20년 12월 '사회적 가치' 담당 조직을 ESG 전담실로 확대 개편. 이 외에도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열사부터 필요한 전력 100%를 친환경 전력으로 사용하는 RE100 실천 중 - ▲SKIET는 올해 3분기부터 양산 가동에 들어가는 폴란드 분리막 공장에서 친환경 전력 사용하기로 결정, ▲SK 에너지는 동사가 보유한 주유소, 충전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차 확산 플랫폼 구축 & 수소충전기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 ▲SK 종합화학, 지난 1월 페플라스틱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미국 열분해유 전문 생산 업체인 브라이트마크와 제휴 <p>https://bit.ly/3waCQun</p>
5/18	<p>CJ 그룹, 대한통운 등 주요 계열사에 ESG 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J 그룹, 지주회사인 CJ 주식회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에 ESG 위원회를 설치. (주)CJ의 ESG 위원회는 김홍기 대표와 사외이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 CJ 그룹은 ESG 자문위원회도 설립했는데, 자문위원회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아 계열사 ESG 전략과 정책에 대해 조언할 예정 <p>https://bit.ly/2Rv3Eqj</p>
5/20	<p>'중소 ESG 전환 적극 돕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등 ESG 경영 전환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탄소 배출량 분석 등을 통해 저탄소 경영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혁신바우처(쿠폰)를 도입해 관련 기술·컨설팅·마케팅을 종합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 더불어 정책자금도 풀 예정인데, 올해 '넷제로'(탄소중립) 자금 200억원을 그린기술 사업화, 친환경 제조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 중진공은 올해 이 같은 친환경·그린 혁신을 위해 6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함 <p>https://bit.ly/3bkTh8Z</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Update (5/17~21)

▲ 주식 및 펀드 시장

5/17	<p>1분기 국내 ESG 펀드 수익률 코스피 200 수익률 1%p 앞질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국내 ESG 펀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신규 펀드 출시도 이어지는 가운데 1분기 국내 주식형 ESG 펀드가 코스피 200 대비 높은 수익 낸 것으로 나타남. 분석 대상 ESG 펀드 중 국내 주식형으로 운용되는 펀드 42개의 1분기 수익률은 7.71%로 코스피 200의 수익률 6.68%보다 1.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밝혀짐 (서스틴베스트, 2021년 1분기 ESG 펀드보고서) - 다만 국내주식형 ESG 펀드의 50% 이상이 코덱스 200 보다 ESG 점수가 낮은 점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ESG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에서 ESG 충실도를 개선한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됨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거래소가 산출하는 ESG 관련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등보다 높은 상승률 집계. 한국거래소 거버넌스 리더스 100지수의 경우 올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20.4%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률 9.6%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 기록 <p>https://bit.ly/3fCncBs</p>
5/17	<p>"ESG 리서치 강화"...삼성증권, MSCI와 손잡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증권, 업계 최초로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MSCI와 전략적 제휴 체결. 이번 제휴를 통해 MSCI의 방대한 데이터와 리서치 노하우를 활용해 ESG 리서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 - 삼성증권 측은 "MSCI가 발표한 국내 기업 ESG 등급 평가를 기초로 비교해보면 탁월(AAA) 기업이 부진(CCC) 기업 대비 6%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투자 관련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p>https://bit.ly/3u0LmKl</p>
5/18	<p>한화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보고서' 다음달 나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일 ESG 위원회를 열어 현재 보유 중인 자산군별 ESG 평가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김 솔 사외이사를 ESG 위원장으로 선임. 다음달 초에 ESG 책임투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 또한 국내 유가증권쪽은 펀드 및 자산군별로 ESG 투자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예고 <p>https://bit.ly/3u2tjWK</p>
5/18	<p>Eurex announces next generation of ESG derivatives on MSCI index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독일 유렉스(Eurex), 이달 말 MSCI의 ESG Enhanced Focus Indexes 기반의 파생 상품 출시 예정. ESG 투자 수요 증가에 맞춰 ESG 파생상품 군을 확장하기로 하고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MSCI 지수 기반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 - 이번에 출시된 파생상품은 MSCI ESG 인핸스드 지수의 세계 지수와 미국 지수, 신홍시장 지수, 유럽 지수, 일본 지수를 기반으로 한 5개 상품. 해당 지수는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아직 채굴하지 않은 화석 연료의 채굴에 따른 잠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p>https://bit.ly/2T7ASg5</p>
5/21	<p>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ESG, 선택 아닌 필수...투자 선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ESG는 투자와 경영 리스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 - 향후 국민연금은 ESG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더 늘리고 기존 '지배구조'에 무게를 뒀던 평가체계를 환경·사회 분야에도 확대할 계획 - 또 ESG 자체 평가 결과 D 등급을 받은 종목에 대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을 금지하는 ESG 통합전략을 올해부터 국내·해외채권 직접 운용, 해외주식 직접 운용 등에도 적용하고,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에는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p>https://bit.ly/3hJl655</p>

▲ 채권 시장

5/17	<p>롯데카드, 5076억원 규모 ESG 채권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억 5000만달러(약 5076억원) 규모 해외 ABS(자산유동화증권)를 ESG 채권 가운데 하나인 '소셜 본드'로 발행. 평균 만기는 3년으로, BNP파리바·소시에테테네랄·DBS은행이 투자자로 참가 - 해외 ESG 인증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는 이번 채권 발행을 앞두고 롯데카드에 'ESG 프레임워크'에 대한 적격성을 인증.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에 쓸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내외 ESG 채권 발행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ESG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 <p>https://bit.ly/2T89MoZ</p>
5/20	<p>한투증권, 첫 번째 ESG 채권...홍행 가능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투자증권, 6월 초 1000억원 규모 ESG 채권 발행 예정. 만기는 3년 단일물로 짜였으며 조달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환경 기업 ▲사회적 기업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에 사용될 전망 -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ESG 채권 역시 앞선 초대형 IB들의 사례와 같이 흥행을 기록할 것 기대. 지난 2월 NH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11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한 이후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차례로 발행에 나서며 모두 오버부킹 기록 -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1~2월 보다 ESG 채권 발행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 <p>https://bit.ly/2QJ3pYp</p>
5/21	<p>DL이앤씨, 분할 후 첫 회사채 ESG 채권으로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L이앤씨(구 대림산업)는 기업 분할 후 첫 회사채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으로 발행할 예정. 조달 자금은 친환경 사업 및 상생 협력 기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채권은 오는 27일 수요 예측을 거쳐 내달 4일 발행 진행 - DL이앤씨가 발행하는 채권은 환경과 사회부문이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으로, DL이앤씨 제 1회 공모사채의 발행 규모는 3년물 1500억원과 5년물 5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이 중 5년물 500억원이 ESG 채권으로 발행될 예정 <p>https://bit.ly/2Rsaz3R</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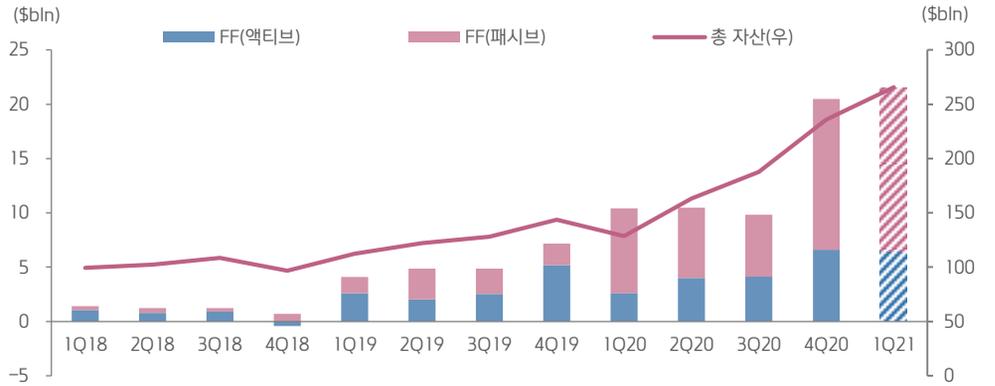
ESG 이벤트 일정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SFDR 발표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NFRD 개정안 발표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 특히 이번 제안에 따라 비 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예정
5/30~31	한국	P4G 서울정상회의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5월 중	한국	2050 탄소중립위 출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
6월 경	유럽	공급망 실사 의무화 입법안 제시	- EU, 인권과 환경 분야에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하는 입법안 제시 계획 - 앞서 3/10 EU 의회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에 대한 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 채택
상반기 내	한국	K-텍소노미 마련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텍소노미 마련 -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유럽	탄소국경세 시행관련 법안 마련	- EU, 이해관계자 수렴을 거쳐 2분기 내 공식 입법안 제출 예정 -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유럽 배출권거래제도(ETS)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
3분기 중	유럽	ESAP 설립 입법안 상정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월 중	한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생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중국-EU	중-EU 텍소노미 개발 논의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텍소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COP15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서식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UN 기후변화협약 COP26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하반기 중	한국	K-ESG 평가지표	- 산업통상부, 한국형 ESG 지표 표준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확정안 발표 예정 - K-ESG 평가지표란, 기업과 여러 ESG 평가기관 등에게 가이드선 성격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지표로 초안은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
연 내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 정부, 올해 안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추가 상향 계획 -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발표 예정
	아세안	ASEAN 텍소노미 개발 착수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텍소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통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행 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텍소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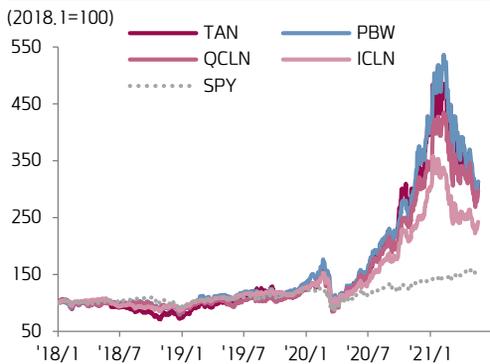
ESG Chart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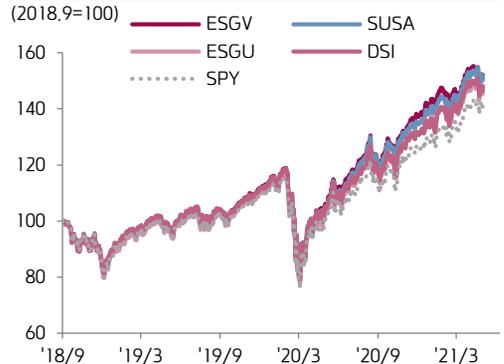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3월 말 기준

대표 친환경 ETF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통합 ETF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ETF 리스트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1Y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17,251.0	-0.3	-0.9	+6.1	+42.6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7,318.4	+0.5	-2.3	-4.8	+48.0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6	5,805.3	+4.5	-7.8	-13.9	+99.3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5,775.9	+0.5	+1.2	+5.1	+41.7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4,371.7	-0.2	-1.5	+5.3	+43.7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543.3	-0.5	-1.0	+7.3	+39.7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3,442.9	-0.4	-1.1	+7.0	+39.6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145.0	-0.3	-1.2	+6.8	+41.3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101.5	-0.2	-0.8	+7.1	+45.6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2,927.5	+8.2	-13.7	-21.9	+140.1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	2,353.2	+5.4	-12.0	-18.8	+132.5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198.5	+0.7	-0.2	+1.4	+42.9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1,838.9	+5.5	-12.8	-26.8	+141.1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0	1,631.8	-1.0	-0.9	+7.5	+51.2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343.6	-0.3	-0.2	N/A	N/A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271.1	+0.0	-0.3	-1.0	-2.4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081.9	-0.4	-0.7	+7.1	+40.9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7	975.6	-1.3	-1.7	+6.6	+55.2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954.6	-0.8	+1.4	+11.0	+42.4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929.1	+0.0	+0.6	+9.2	+51.2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889.3	+5.3	-11.1	-18.5	+94.1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887.1	+0.1	-0.3	-0.9	+0.9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874.6	-0.6	-1.8	+2.5	+71.5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865.9	+0.9	-3.6	-1.8	+103.5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62.9	+0.2	-2.6	-4.0	+46.7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845.0	-0.9	-2.2	+2.2	+67.0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815.7	+0.1	+0.1	-0.2	+1.3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814.3	+0.2	-0.3	+4.6	+42.7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652.0	+0.6	-4.4	+1.8	+41.3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607.1	+0.6	+1.6	N/A	N/A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578.8	-0.5	-0.5	+7.6	+40.8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474.4	+0.5	-1.7	+0.7	+55.2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449.2	-1.2	-0.9	+6.7	+45.6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43.9	+2.1	-6.0	-7.3	+60.0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16.3	-0.3	-1.5	+5.7	+42.8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392.0	+2.6	-6.5	-4.8	+66.6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	386.4	+0.5	-1.5	+4.8	+75.9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382.6	+5.3	-8.2	-15.8	+110.4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377.4	-7.6	+8.2	+22.2	N/A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375.4	+1.5	-2.9	+1.8	+84.1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69.1	+3.7	-9.7	-17.0	+127.3
NUMG	Nushares Etf Trust -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298.1	+1.0	-6.2	-1.2	+43.9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282.3	+4.1	-8.3	-11.9	+100.0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277.9	-0.0	+0.7	+10.5	+45.6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266.2	+0.0	-0.3	-0.7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5-14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1Y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0	248.4	+0.1	-0.4	-1.4	-3.6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34.2	-1.7	+1.4	+10.9	+61.9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30.8	-0.1	-0.9	+3.4	+43.9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	230.1	-0.4	-0.1	+7.0	+41.8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219.0	-0.5	-0.5	+7.5	N/A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	212.6	+0.0	-1.8	+6.0	N/A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12.2	+0.8	+1.2	+5.1	+41.2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11.5	+0.1	-0.9	-1.3	+0.6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191.8	+0.7	+1.1	+4.8	+42.3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191.0	+1.9	-5.5	-8.9	+79.3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188.2	+0.2	+0.1	-0.6	+1.7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77.6	-0.4	-0.7	+6.8	+42.4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71.8	+0.2	+0.2	+6.2	+42.6
EEMX	SPDR MSCI EM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70.2	+0.2	-3.1	-5.8	+46.9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168.0	+0.1	-0.2	-0.8	N/A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164.5	+1.8	-3.4	-10.0	+93.9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59.9	-0.0	-2.2	+2.6	+51.8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149.9	+0.6	+0.4	+3.3	N/A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4	148.0	+0.0	-0.0	-0.1	+0.6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47.1	+0.3	-1.8	+4.8	+35.8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43.7	-0.5	-1.1	+6.4	N/A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35.1	+7.0	-13.0	-21.7	N/A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32.4	+6.6	-5.4	-14.1	+128.9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25.6	+3.6	-3.5	-5.5	+19.9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s Equity ETF	ESG	0.40	117.4	+0.5	+1.0	+4.0	+42.3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12.5	+0.5	-2.3	+0.1	+32.0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2.2	+0.1	-0.2	+4.8	+42.8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사회책임, ESG	0.35	106.6	-0.1	-0.4	-0.9	+6.2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93.0	-0.7	-0.2	+7.9	+45.6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90.9	+0.7	-2.8	-4.1	+56.3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88.5	-0.1	-0.3	-1.1	+0.0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86.4	-0.3	-0.5	-1.2	+5.6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69.5	-1.0	-0.3	N/A	N/A
XVW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68.3	-0.5	-0.8	+7.0	N/A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66.0	+0.2	-1.8	+5.1	+45.7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2.1	-1.1	+1.0	+14.5	+65.4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0	53.1	-0.1	-2.9	+4.2	+43.2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42.3	-0.1	+0.0	+8.5	+54.1
GLRY	Inspire Faithward Mid Cap Momentum ESG ETF	종교관련, ESG	0.85	41.0	-0.6	-5.0	-9.6	N/A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4.2	+0.3	-2.2	-1.9	+50.8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2.8	-0.4	-1.6	N/A	N/A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erging Markets Sovereign Etf	ESG	0.35	30.3	+0.8	-0.0	-0.0	+6.0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29.9	+4.7	-8.7	N/A	N/A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 ESG	0.12	29.4	+0.1	-0.3	-0.7	N/A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28.4	-0.0	-1.3	+6.0	+42.8

자료: Bloomberg, 주) 2021-05-14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1Y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ESG	0.12	27.8	-1.3	-2.2	+6.1	N/A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27.1	+9.5	-10.3	N/A	N/A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5.2	-0.3	-0.4	+7.6	N/A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5.1	-0.2	-1.7	+5.4	+42.7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24.6	+0.1	-0.6	+6.1	+51.8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19.6	-0.1	-0.6	+3.3	N/A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8.8	+0.7	+1.0	+4.5	+39.4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17.9	-0.9	+1.4	+10.9	+37.4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17.5	-0.7	+2.3	+11.1	+50.3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20	16.9	+0.1	-0.8	-0.8	+10.0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16.8	+0.1	-3.8	-5.7	+46.8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16.7	-0.0	-0.8	+2.1	+8.8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8	14.2	+0.4	-4.6	-1.5	+83.0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14.0	+1.4	-7.3	-9.0	N/A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13.2	+0.9	-1.9	-3.6	N/A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2.8	+1.4	-5.0	-9.4	N/A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1.8	+1.0	-1.0	+7.4	+22.4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0.7	-1.3	-1.9	N/A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5	-0.7	-0.4	N/A	N/A
ACSG	Xtrackers MSCI ACWI ex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6	10.1	+0.6	-0.0	+1.8	+43.0
XI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ESG	0.12	9.8	-0.8	-1.2	+3.5	N/A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9.5	+0.6	+1.2	+8.5	N/A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9.0	+0.4	-4.0	-0.2	+39.1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8.6	+1.1	-2.9	-1.0	N/A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8.1	-1.4	-0.2	+10.8	+38.7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7.8	+0.8	+1.3	+6.3	+37.6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7.6	+0.1	-0.6	-1.0	-1.0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6	-0.0	-0.5	+2.3	N/A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100 ETF	청정에너지,에너지	0.87	7.5	+2.4	-7.3	-9.4	N/A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6.5	-0.6	-0.4	+7.6	N/A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7	+1.0	+2.5	+5.4	+41.8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7	-0.0	-0.4	+1.3	N/A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6	-1.2	+4.1	+14.9	+59.5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5.5	+0.0	-0.4	+0.8	N/A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39	5.0	+0.9	+0.8	N/A	N/A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ESG	0.79	4.9	+3.2	-3.8	-4.3	N/A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4.8	+0.7	+1.3	+5.9	+42.1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0	3.2	-0.6	+0.3	N/A	N/A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0	1.5	+0.4	+0.2	+8.0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4	+0.4	+3.1	+11.1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5-14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https://bit.ly/3ugq4ce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https://bit.ly/2Qj0yFx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bt8R97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https://bit.ly/3tLTsq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3JdTdi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https://bit.ly/3eO4szl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tLGgCi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https://bit.ly/3bqxpzu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https://bit.ly/3uPfpX0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https://bit.ly/2SOCIrk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https://bit.ly/3w8O1D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https://bit.ly/3eMeq58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https://bit.ly/3uZXZr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